유식 · 여래장연기, 기신론의 두 가지 관점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은 6세기 중반부터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논서다. 최초의 기신론주소를 낸 담연(曇延, 516~588)으로부터 혜원(慧遠, 523~592), 우리나라의 원효(元曉, 617~686) 그리고 당나라 때의 법장(法藏, 643~712) 등은 대표적인 기신론 연구가였다. 이들의 연구 덕분으로 기신론 사상이 동북아시아 전역에 보급되어 불교사상의 주류와 개성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기신론은 대승불교를 이해하는 기본 텍스트가 되었으며, 특히 유식사상을 발전시키는 모태가 되어 기신론이 유식사상적 성격을 중시하는 관점을 지니는 논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기신론에 담겨져 있는 유식사상을 중요시 하는 입장에서 기신론의 내용을 파악한 기신론의 하나의 관점이 되었던 것이다. 담연과 혜원 및 원효의 주소에서 이러한 관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담연은 〈섭대승론〉에 설해져 있는 초기 유식사상에 입각하여 기신론을 이해했고, 혜원 역시 〈섭대승론〉 및 진제삼장의 유식설에 입각한 초기 유식사상의 관점에서 기신론에 접근하였다. 혜원은 특히 아려야식의 망(妄)이 떨어진 진식(眞識)의 측면을 부각시켜 기신론이 〈능가경〉과 같은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하였다. 그는 기신론이 〈능가경〉을 의지한 논서라 하여 〈능가경〉의 유식사상이 그대로 기신론에 의해 재조명된 것이라 주장하였다.

원효도 기신론을 유식사상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의 주소에는 〈능가경〉 3역을 골고루 인용한다. 〈능가경〉은 제일 먼저 유송(劉宋) 때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 394~468)가 443년에 번역한 4권경이 있고, 다음 원위(元魏)의 보리유지(菩提流支, ?~572)가 513년에 번역한 10권경이 있다. 또 당나라 때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700년에 번역한 7권경이 있다.

〈능가경〉은 후기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으로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등 초기 대승경전과 〈열반경〉, 〈승만경〉, 〈해심밀경〉 등 중기 대승경전 등 여러 경전들의 사상을 종합하고 회통하여 여래장사상으로 귀결시킨 경으로 알려져 있는 경이다. 호법의 유식설에 영향을 끼쳤고, 기신론의 여래장사상도 〈능가경〉을 의지한 것으로 본다. 또한 중국 선종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능가경〉의 몇 가지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첫째 여래장사상과 유식사상을 결합시켜 기

원효 등 유식으로 기신론 해석
법장은 화엄 기반 新이론 펼쳐

신론의 일심(一心) 이문(二門) 체계를 세우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요, 둘째는 명(名), 상(相), 분별(分別), 정지(正智), 진여(眞如) 등 오법설과 팔식설(八識說) 및 삼성설(三性說) 등을 설하면서 〈해심밀경〉 등 유식사상을 계승하여 후기 유식학설을 발전시킨 점, 셋째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결국 일불승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법화경과 같은 취지의 회삼귀일(會三歸一)의 사상이 나타나 있는 점이다. 그리고 사종선을 설하여 여래선의 경지에라야 무분별지를 얻는다고 강조해 놓은 점이다.

기신론을 연구한 제가들이 유식사상에 맞추어 기신론의 사상적 관점을 유식 쪽으로 보아온 경향이 많았음에도 화엄대가였던 법장은 관점을 달리했다. 그는 기신론을 여래장연기종(如來藏緣起宗)이라 교판하면서 중관과 유식에 대한 여래장연기종의 독립성을 내세우고 동시에 여래장연기종의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여래장이 지니는 불생멸의 측면을 더욱 중시하여 기신론이 여래장에 의한 생멸연기를 설하고 있다고 했다. 불생멸은 곧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이며 진심(眞心)이다. 이것이 연기의 시발점이 되므로 법상(法相)을 주목하는 유식사상보다 여래장연기사상이 훨씬 탁월한 것이라 하였으며, 이점에서 보면 기신론은 유식사상과는 다른 독립체계를 갖추어 있는 것이라 했다. 담연, 혜원, 원효에게서 일관되게 부각된 기신론의 유식사상은 〈섭대승론〉이나 진제의 구식설에 의거하여 기신론과 유식설을 동일계열의 유사한 것으로 보았지만 법장이 주장한 여래장연기종은 독자적인 설로 유식적 관점에서 벗어난 새로운 기신론관이 되었던 것이다.

나에게 인색한 마음이 남아있는가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㊽보시를 싫증내지 않으려면

菩薩發誓願時一切皆捨。雖有是語一切眾生實未得利。修行布施爾時一切眾生得利益受用。菩薩捨身不足為難。知身無常苦空不淨。為眾生故而不捨離。是則為難。菩薩悲心為眾生捨身不足為難。樂捨無有厭足。此則為難。假設使一凡夫令返大地力不能就甚生憂惱。菩薩見苦眾生未度脫時。心懷悲惱復過於是。以悲心故。菩薩觀身輕於草土。為眾生捨身何足為難。若人為己身故一念中受不殺戒。是人命終必生天上。菩薩為眾生捨於身命。所有功德生死之中無有受處。唯至菩提乃能容受。菩薩若聞有人來乞身時。ᄒᆞ時生念。我已久捨此身而不自取。方從我索必當謂我有慳惜心而試我耳。(보살발서원시일체개사。수유시어일체중생실미득리。수행보시이시일체중생득이익수용。보살사신부족위난。지신무상고공부정。위중생고이불사리。시즉위난。보살비심위중생사신부족위난。락사무유염족。차즉위난。가설사일범부령반대지력불능취심생우뇌。보살견고중생미도탈시。심회비뇌부과어시。이비심고。보살관신경어초토。위중생사신하족위난。약인위기신고일념중수불살계。시인명종필생천상。보살위중생사어신명。소유공덕생사지중무유수처。유지보리내능용수。보살약문유인래걸신시。즉시생념。아이구사차신이불자취。방종아색필당위아유간석심이시아이。)

번역

보살이 일체를 희사하기를 서원할 때, 비록 일체 중생이 있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익 얻음은 없습니다. 수행하고 보시할 때, 일체 중생이 이익을 받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살은 몸을 희사하되 만족하지 않는 것이 어려우며, 몸은 무상(無常)하며, 괴로움이요, 공한 것이요, 부정한 것임을 알지만 중생을 위해 버리고 떠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중생을 위해 몸을 희사하되 만족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거니와 즐거이 버리되 싫어하거나 만족하지 않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가령 한명의 범부에게 넓은 땅을 갈도록 시켜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근심과 괴로움을 일으키거니와 보살이 고통 받는 중생을 보고 제도하지 못했을 때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게 그 보다 큰 것은 자비심 때문입니다. 보살이 자신을 관찰함에 풀이나 흙보다 가벼이 여긴다면 중생을 위해 몸을 희사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만약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 한 생각 가운데 불살생계(不殺生戒)를 받아도 사람의 목숨이 끝날 때 반드시 천상에 나거니와 보살이 중생을 위해 몸과 목숨을 희사하여 소유한 공덕은 생사를 벗어나게 합니다. 오직 지극한 보리심이라야 능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보살이 만약 어떤 사람이 구걸하러 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즉시 생각을 일으키기를, '내가 이미 오래전에 이 몸을 버리고 스스로 취하지 않으리라 하였거니와 바야흐로 나를 좇아와 찾는 것이 분명하구나. 내가 인색한 마음이 있는지 나를 시험하는구나' 합니다.

해설

가진 이가 넉넉히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게 무엇이 어렵겠는가. 다만, 보시하되 보시했다는 만족감이나 또 보시를 해야 하는가 하는 싫증내지 않는 마음가짐이 어렵지 않겠는가.

보살은 자신의 몸을 넉넉한 재산쯤으로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

제바보살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지극한 보리심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보살심을 실천함에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었던가?"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든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사랑하며 용서하며

초청강의가 있을 경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가벼운 질문부터 던지는 경우가 있게 된다.

"사람의 신체 중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나의 물음에 대개는 자신 있게 '머리' 라고 답변한다. 그러나 사람은 걸어가고 앉아있고 서 있을 때만이 사람이 아니다. 누워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도 사람이다.

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이가 70세일 경우 35년은 밤이요 35년은 낮인 셈이다. 그렇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누워 있거나 잠든 시간도 35년일 수 있을 터이다. 누워 있을 때는 가슴 부위가, 또는 배불뚝이 경우 배꼽부위가 신체중 제일 높은 곳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옆으로 누울 경우 어깨부위가 정답일 수도 있을 테니까. 들숨과 날숨이 이어지는 사람의 삶에는 정해진 답이 있을 수 없다. 사랑도, 정의도, 가치기준도 눈높이에 따라 환경의 변화만큼이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개의 눈썹이 짝눈과 짝 눈썹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왼쪽 귀와 오른쪽 귀가 모양과 생김이 다르고 크기와 두께와 색깔이 다를 터이다. 내 얼굴에 박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은 놀라울 만큼 다른 것이다.

같은 머리카락을 찾을 수 없고 같은 두 팔과 두 다리를 지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비슷하나 같은 것은 없는 것이다. 하물며 내가 그 누구의 것이 영원히 될 수 없는데도 그 누구는 영원히 온전히 내 것이길 바라는 소유욕과 집착의 번뇌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소유욕을 줄여나가고 집착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것이 진리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고 더러는 헐떡이며 타는 목마름에 방황할 수 있다. 배(船)를 타지 않고도 멀미를 느낄 수 있고 두 눈 멀건이 뜨고도 가위에 눌릴 수 있다. 맹물을 마시고도 취할 수 있고 가족과 반려자가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넘쳐도 부족하고 있어도 없는 듯이 가슴이 허

다름의 문화 · 생각을 존중하라
이해 · 배려는 행복을 위한 길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인 착각과 부정적인 착각으로 행복과 자유를 꿈꾸며 삶의 의미에 느낌표를 더해가고 있을 터이다.

다른 사람은 옳고 그렇다며 동그라미 쪽으로 몰리지만 나의 눈높이로는 틀리고 아니다며 'X'를 고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념과 사상(思想), 철학의 기본 틀마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색깔과 무게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선입견에 색안경을 쓰고 거리감을 두거나 평가 절하하는 경우도 우리네 생활 주변에는 널려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선(線)긋기를 즐기고 편을 가르고 짝을 이루어 명분을 앞세워 실리(實利)를 챙기는 이기(利己)적 동물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 한 울타리, 한 가족 사이에도 이방인(異邦人)이 끼어 있기 마련이요, 부부 사이에도 더러는 아웃사이더가 되어 물과 기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번엔 가볍게 사람의 얼굴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자. 두 개의 콧구멍의 간격이 지극히 가까운데도 생김과 모양은 짝 콧구멍을 이루어 배 다른 형제처럼 거리감을 두고 있다. 두 개의 눈이, 전할 수 있다. 바람만 불어도 역마살 낀 운명처럼 어디론지 떠나고 싶고 틀을 벗고 굴레에서 자유로운 바람이고 싶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가 이럴 수 있듯이 타인(他人)도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듯 그가 해도 로맨스인 것이다.

이 세상에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듯 내가 타인(他人)일 수 없듯 다른 사람도 나일 수 없는 것이다. 다름의 문화와 다름의 생각과 생활을 존중해 입장 바꿔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바른 길이다. 참으로 뼈저리게 참으로 간절하게 다름을 받아들여 '사랑하며 용서하며'가 하나를 이룬다면 마음의 평화에 행복이 깃들 터이다.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부정적인 착각은 어둠을 몰고 오지만 긍정적인 착각은 밝음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생각의 전환이 생각의 윤회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을 옮겨 놓는다. "두드리지 말라 문은 항시 열려 있느니라. 두드리려는 마음이 곧 또 하나의 문을 만든다. 구하지 말라 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할 것이요, 구하면 구할수록 마음은 번민에 찬다."

창사 36주년 기념 -
전 품목 25% 할인 판매 단행
※ 기간 :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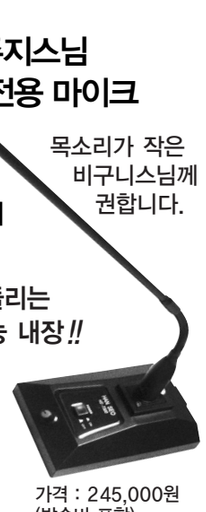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 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031-255-0066 | 010-3045-0085

부설 태극기 안에 담긴 행복한 삶의 지혜
동양사상의 꽃인 天, 地, 人 삼재사상(명리학, 풍수학, 한의학) 醫聖 이제마의 사상의학과 사암도인의 오행침법 전수 동,서양 철학과 현대물리학을 근본도리에 회통 강의

무문관 傳法講主 釋 眞 性

부처님 마음 공부

무량 청정암 열린 마음선원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부처님 마음공부를
함께하실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아 래

❶ 교육과정 및 일정

과 정	요일및시간	수업내용	
기초과정	매주 화요일 (요일 변경 가능)	염불선	1단계 : 불교이해 2단계 : 경전독송 이해
중급과정	매주 수요일	참 선	참선이해, 법거량
고급과정	매주 금요일	간화선	화두참구, 깨달음

❷ 수업 신청 방법
- 기초과정 : 3개월 선착순 (20명 이내 한정)
- 법사와 1대 1 수업 운영
- 수 강 료 : 3개월 (30만원)

❸ 교육장소 : 무량 청정암
❹ 교 수 : 무량 청정암 최정훈 법사
❺ 문 의 : 010-2559-6886

무 량 청 정 암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76번길 23